

세계 훈장들의 디자인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Design of Order

임채숙

한양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윤종영

한양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 Key words: 훈장(Order), 형태(Form), 소재(Matter)

Lim, Chae-Suk

Dept. of Industrial Design, HYU

Yoon, Jong-Young

Dept. of Information Design, HYU

1. 서론

오늘날 디자인 경향은 단순화와 상징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디자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단순화와 상징화를 대표할 수 있는 예술적 창작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 세계적인 권위와 지위를 나타내는 훈장은 디자인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은 자료 및 연구 모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각국의 훈장 제조 방법 및 형태적 특징, 소재가 갖는 상징성들을 비교 정리하고 이것이 가지는 디자인적 가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 훈장들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훈장의 디자인 발전 방향을 제시함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외국 훈장의 사례 국가들로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을 선정하고 40여개 종류의 훈장을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2. 본론

훈장의 기원은 11세기 십자군 시대에 발생한 종교기사단(Order)의 표장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영국에서 훈장이나 훈위 등을 'Order'(종교기사단)라고 부르는 것도 여기서 비롯되었다. 그 이후, 근대국가가 들어서면서 서훈제도가 정착되었다. 세계 훈장 중에서 최고로 역사가 길다고 여겨지는 훈장은 덴마크의 '다네브로 훈장'(1219년 제정)이다.

현재 세계 각국의 서훈제도는 군주국과 공화국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훈장 자체는 각국의 민족성, 전통, 관습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종류 및 디자인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세계 훈장의 제조공정은 [표 2-1]과 같이 거의 동일하다.

[표 2-1] 훈장의 제조공정

① 용해	은으로 일정크기의 은괴로 만들기 위해 용해로에서 녹여 형태에 붓는 단계
② 면삭	은괴의 양쪽 표면을 셰이퍼나 밀링으로 절삭 가공하여 거칠고 품질이 균일하지 않은 부분을 제거하는 단계
③ 압연	면삭이 끝난 은괴를 압연기에서 필요한 두께의 판으로 만드는 단계
④ 압사	훈장 구성부품을 찍어내기 위해 각 요소의 모양이 은각으로 된 금형을 이용, 압연공정에서 만들어진 은판에 금형상의 모양을 복사하는 단계
⑤ 타발	압사되어 나오는 부품을 훈장의 모양과 유사하도록 프레스로 따내는 단계
⑥ 세공	타발 공정에서 따낸 부품과 유사한 형상을 완전한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 줄로 다듬고 연마하여 광을 내는 과정

⑦ 철보	기관, 명판, 표상판 등 필요부분에 유약을 바르고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용융된 유약을 소재에 용착시키는 과정
⑧ 광식	잘 연마된 식로 은제품 면을 문질러 광을 내는 과정
⑨ 광택연마	제품의 모든 면을 거울 면같이 광을 내는 작업
⑩ 도금	소재금속 표면의 내식성을 높이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금도금을 하는 과정
⑪ 조립	기관, 명판, 표상판, 표상 등 개별 부품들을 하나의 몸체로 조립하는 과정
⑫ 수조립	정장수, 약장수, 금장수 등 수를 사용하여 모양을 만들어 달거나 일부부품을 감싸는 과정
⑬ 검사	완성된 정장, 부장, 약장, 금장을 검사기준에 의해 제품의 양부를 확인하는 과정

3. 국내·외 훈장의 사례 연구

3-1. 우리나라 훈장

대한제국 당시, 광무4년(서기 1900년), 칙령 제 13호로 「훈장조례」를 공포하여 7종의 훈장이 수여되었으나,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인하여 그 권위와 영예가 함께 퇴색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조국의 독립과 건국에 공로가 있는 선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49년 4월 27일 처음으로 건국공로 훈장령이 제정·공포되면서 훈장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 후, 무궁화대훈장령 등 9개의 훈장령이 제정·공포되어 운영되었다. 1963년 12월 14일 각 개별법령에 의거하여 운영됐던 상훈제도를 통합하여 단일 법률로 개편하고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상훈제도에 이르게 되었다.

3-2. 외국 훈장의 사례 연구

① 미국 : 자유훈장, Region of Merit 훈장 외에, 군인에게 수여되는 명예상, 십자장, 현공(顯功)상 등이 있다.

② 영국 :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터 훈장(The Most Noble Order of the Garter)을 비롯하여 시슬 훈장 및 성 패트릭 훈장 등 십 수 종의 훈장들이 있다.

한편, 영국 훈장의 특징은 여타 훈장의 정장과 부장이 대개 동일한 형태를 띠는 데 비해, 제각기 다른 특색을 갖는다. 형태 자체에 있어서도 부장은 전형적인 훈장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정장 및 경식장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성 조지(St. George)의 형상이 부착되어 있고 주위에 훈장의 모토를 새긴 금속판을 띠 모양으로 둘러싼다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일화적인 성격이 강하다. 훈장의 유래와 모토를 직접적이고 파격적인

방식으로 조형화에 도입하여, 구성방식의 과감성과 직접성을 보여준다.

③ 프랑스 : 세계적으로 최고의 권위와 명성을 가진 레종 드 뇌르 훈장은 1802년에 나폴레옹이 만들었다. 본 훈장은 정장, 부장, 대수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구성은 우리나라의 훈장 구성과 거의 동일하다. 정장은 5개의 백색 칠보가 별의 형상을 이루고 있는 형태이며,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칠보 대지 뒤에 참나무 및 등나무잎의 형상이 돌아가면서 배치되어 있으며, 표상판에는 프랑스 공화국을 상징하는 여신상이 새겨져 있다.

한편, 프랑스 훈장의 특징은 그 구성이 비교적 평이한 편이다. 프랑스의 정치 체계가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변화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가장 먼저 합법화한 국가다운 간결성과 진솔성이 훈장 구성에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한다. 형태적인 면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뺀어 나오면서 끝 부분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십자가와 별의 형태를 주요 모티브로 하고 있는 외국 훈장의 경향성을 알 수 있는 전형적 사례이다. 단, 이와 같은 형태의 대지 수가 4개가 아닌 5개라는 것이 독특하며, 단조로와 보이는 기판과 식물 양식의 조화를 통해, 간결하면서도 단아한 장식성을 갖는 프랑스 훈장의 형태적 특징을 보여준다.

④ 독일 : 독일연방공화국의 공로훈장으로서 대십자훈장과 공적훈장의 2종이 연방 대통령 테오도르 호이스에 의해 신설되었다.

한편, 독일 훈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극도의 간결성과 직선미이다. 일체의 유기적인 장식 및 변화를 배제하고 말타 십자(Maltese Cross:전통적인 독일식 십자가)형태와 독수리 문양을 기판과 표상판에 공통적으로 채택하며, 배경에 부착되는 서로 다른 형태(8각, 6각, 4각)의 기판에 의해 훈장의 등급을 구별하는 방식에서, 독일 디자인 특유의 조형적인 간결미와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독일 특유의 체계성은 등급의 구별이 타 훈장에 비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⑤ 일본 : 일본 훈장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금속성이 두드러지지 않고 칠보가 차지하는 표면적 비중이 극히 크다는 점이다. 금색, 은색의 금속 프레임이 틀을 이루고, 그 사이를 백색, 적색을 기조로 한 칠보 세공을 치밀하게 메우는 형태이다. 이와 같은 기본 조형 형성 방식이 금속의 날카로운 느낌을 순화하고 동양적인 단아함을 부여한다. 이러한 특징은 문화훈장의 경우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일본 훈장이 갖는 또 하나의 특색은 식판의 조형성과 세공성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보관장(宝冠章)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식판의 형태 자체가 바뀌게 되며, 육일장(旭日章)과 문화훈장에서도 식물 문양을 양식화한 식판이 중요한 조형적 비중을 이룬다. 반면 보관장을 제외하고는 표상판의 복잡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인데, 여기서도 일본 특유의 조형 구성방식을 관찰할 수 있다.

4. 비교 결과

앞에서 살펴본 외국 훈장들을 비교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4-1. 기판

기판이 갖는 대칭성이나 대지의 방사 수 등에 있어서는 특기할 만한 사항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는 훈장의 형태가 정형화된 부분이라고 판단한다. 대부분의 훈장은 사방 대칭형을 기본으로 하며, 주로 발견되는 방사 수는 4개, 5개, 6개, 8개이다. 이 중 4개의 경우에는 주로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국가의 훈장으로 십자가의 형태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십자 형태 중에는 말타 십자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한편, 방사 수가 5개인 경우는 주로 별의 형태를 모티브로 하는 공산권 국가에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이념적, 종교적인 측면을 강하게 반영하는 훈장 조형의 구성 방식에 기인한 추세라고 판단한다. 기판 및 중기판의 형태는 칠보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넓고, 전반적인 형태가 간결한 훈장이 많이 발견된다는 점이 특색이다.

4-2. 표상판 · 식판

외국 훈장이 갖는 표상판 · 식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비교적 면적이 넓고 전반적인 윤곽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둘째, 훈장에 따라 그 의미가 극도의 구상성을 갖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왕관, 사자, 인물 문양 등 그 나라의 전통을 반영하는 소재들이 채용되는 경우에는 소재의 변형 및 양식화가 쉽지 않은 까닭에, 장인 정신과 기술력을 표상에 집중함으로써 훈장의 권위와 예술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상판의 테두리 부근에 훈장 또는 국가의 모토가 기입된 경우도 많은데, 이를 통해 외국 훈장의 진솔성과 정통성을 느낄 수 있다.

즉, 외국의 훈장은 대체로 형상의 바탕을 이루는 기판 부분은 품위를 잃지 않을 정도의 간결성을 유지하면서, 표상판 및 식판 부분의 장식성과 전통성을 강조하여 설계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은 설계 개념이 결과적으로 조형상의 강약과 권위를 추구하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5. 결 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의 훈장들은 각 국의 문화적 · 예술적 특징과 훈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 및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 및 소재와 표현 양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위와 가치를 상징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특색은 각 국의 문화 · 예술 및 디자인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의 훈장들의 디자인적 요소 즉, 시각적 조형미 및 독창성과 그것이 상징하고자 하는 권위와 가치의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디자인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세계의 문화적 · 예술적 특성과 새로운 디자인적 가치를 이해하고 표현해 내는데 좋은 성장 원동력이 될 것이다.